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수성을 주호영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4.13 총선과 8.9 당대표 선거 때 저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돌아보면 어느 한 해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습니다만,
특히 지난해는 우리 대구시민들에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들었고, 또 꼭 성공할 것이라 믿었던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게 되었고,
대구 대표시장인 서문시장에 대형화재가 나는 등 우리들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진 채로 낫놓고 있지 말고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 새출발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의정보고를 드리면, **올해 대구시가 확보한 국비예산은 3조 1,584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38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비록 당은 서로 다르지만
대구를 발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지역국회의원 12명과 대구시장이 톡톡 뭉쳐
힘을 합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복지수요 증가 등 어려운 재정과 중앙부처의 재량지출 축소, 재정사업 평가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예산은 대구시의 차세대 주력산업인
의료·물·에너지·미래자동차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이 되어
대구경제가 첨단미래산업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수성구의 주요공약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동·중동·두산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였고
‘도로·교통·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도 4.2억원 확보하였습니다.**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공약은 범안로구간 전체 무료화추진을 위해 수성구의회
범안로무료화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으나 논의과정에서 결론을 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이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산범물권 주민대상 무료통행권 발급 우선시범사업’을 대구시와 수성구청 등
관계기관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4가동 초등학교 배정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중인데
학생수 감소, 학교부지확보의 어려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추진상황을 수성4가 주민들께 정기적으로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 제가 공약한 사업들도 철저한 이행계획을 세워 임기 내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제일처럼 최선을 다해 힘쓰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출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정혼란을 막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국정을 잘 감시해야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성구민들과 국민들 앞에 무릎꿇고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새누리당을 떠났습니다.

대구출신 국회의원으로, 오랫동안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떠난다는 것이
저에겐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선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일신의 편안함을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것이 좋겠지만,
이대로 있다간 보수가 공멸한다는 생각에, 엄동설한에 험난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가 당을 떠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무능하고 독선적인 친박특정세력이 나라와 새누리당을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망쳐냈고 여전히 발호하고 있습니다.

4.13총선 참패, 최순실 국정농단 등 나라와 당이 파탄났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친박세력이 당에 파리를 틀고
여전히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한 새누리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둘째, 지금의 새누리당으로는 '대선필패'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는 유력한 대선후보가 없습니다.
또 새누리당으로 오려는 대선주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대선이 올해 5월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하는데,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친박새누리당은
오는 3월로 예상되는 현재심판 전까지는 대선후보를 거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탄핵인용 후에는, 불과 30일 내에 대통령후보를 내야하는데,
물리적으로 대선후보를 낼 수 없거나 설사 낸다하더라도 부실한 후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보수세력이 분열되면 대선에서 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개혁의지도 없고 대선후보도 낼 수 없는 새누리당에 낳 놓고 앉아있으면 보수는 공멸하고 맙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친박수구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결별해야만 길이 있습니다.
유능하고 깨끗한 개혁보수신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고
훌륭한 대선후보를 내는 것이야말로 좌파정권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세력에게 정권을 고스란히 바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개혁보수신당! 능력있고 책임질 줄 아는 진정한 보수정당이 되겠습니다.

'국가안보와 법치',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헌신'이라는 보수의 근본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개혁보수정당이 되겠습니다.

저의 거취에 대해 사전에 많은 분들과 상의드렸습시다만,
한분 한분 찾아 뵙고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도와주셨듯이 이번의 저의 결정도 믿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아침에
개혁보수신당 (가칭) 원내대표 국회의원 **주호영** 배상